

# 정부는 허위·형식적 구직활동 검증을 강화하고, 보다 엄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.

## 1. 관련 기사

- 7.8.(수) TV조선, 백지 이력서 내고 수당 받아...국고 축내는 '국민취업 지원제도'

- (중략) 구직 의지가 없는 사람들도 형식적인 서류만 내면 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- (중략) 백지로 된 지원서를 내고도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- 매달 두 차례 이상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하지만, 채용 공고와 입사지원 내역만 내면 됩니다.

## 2. 설명 내용

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 의지와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증빙서류와 상담사 1:1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, 대다수의 참여자는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있음
- 참여자가 개별 기업에 제출하는 지원서의 내용까지 모두 확인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나, 향후 AI 기반 구직활동 모니터링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허위·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계획임
- 한편, 현재도 허위·형식적 구직활동이 확인된 경우 지원 중단 및 향후 참여 제한,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,
  - 허위, 형식적 구직활동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수령 등 부정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인 만큼, 근절을 위한 관리·감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

담당 부서	고용서비스정책관 국민취업지원기획팀	책임자	과 장	김현아 (044-202-7190)
		담당자	사무관	최원석 (044-202-7193)